

#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 A Study on the Alienation of Low-Income Female Earner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신 수 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 Shin, Soo Ah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I. 문제제기	IV. 연구결과
II. 개념정의 및 관련변수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lienation of low-income female earners and to investigate the affected variables of their alienation. For this empirical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6 poor, female-earners whose first child was of school 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the 14th of Feb. to the 18th of Mar. 200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mea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poor female-earners' alienation level was not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However among sub areas of alienation, powerlessnes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level of alienation were the amount of support from the child, the cost from the work role, perception of the cost of child raising, economic strain events,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reward from the work role.

\* 이 논문은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임.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일부 지원되었음.

◆ key word: 저소득층 여성가장, 소외감

## I. 문제제기

최근에는 이혼, 별거, 유기나 미혼모의 증가로 여성가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통계청, 1997), 이러한 여성가장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완전한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어려움 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양육 역할 이외에 경제적인 생계부양자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므로 이중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만족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생태학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여성가장이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겪는 소외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편이다.

소외란 현대사회의 구조적 맥락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대감과 이에 대한 보상간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다(Dean, 1961; Seeman, 1975). 소외는 권력이나 경제적 부의 분배구조와 관련하여 지배층이나 가진자로부터 시달리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피지배층과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 상실감을 대변하는 말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소외된 집단을 범주화시켜 각 집단이 경험하는 소외의 형태나 그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다(박승위, 1996).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체감하는 소외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들이 갖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중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개인 특성 변수(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소득, 건강상태, 결혼지위, 종교활동 참여도, 직업역할 보상/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가족 특성 변수(가족의 적응성, 보상적/비용적 자녀관, 자녀의 지원, 경제적 긴장사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사회적 지원 변수(친척, 친구, 이웃의 지원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개념정의 및 관련변수고찰

### 1. 개념정의

#### 1)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란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단지 소득에 의하여서만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빈곤의 개념, 특히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김태현·조희선, 1991; 박혜인, 1992). 한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에서 일정한 정도 이하에 위치한 개인이나 가구를 모두 빈곤층이라고 간주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은, 객관적인 생활상태가 주관적인 심리상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현대사회의 빈곤을 살펴보기에 적절하고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저소득층을 절대적 빈곤층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sup>1)</sup>, 즉 빈곤한 계층으로 정의한다.

## 2) 여성가장

이 연구의 대상자인 여성가장이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가구주로 인식되는 여성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자가 여성인 경우로, 사별, 이혼, 유기 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모인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Buvinic, Youssef, & Von Elm, 1978, 김정자, 1988에서 재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나 편모는 유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만이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IMF 금융관리체제 등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배우자가 실직하는 경우가 늘어나,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여성가장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여성가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 3) 소외감

소외(alienation)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과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소외에 대한 논의로는 사회구조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심리적 관점이 있는데, 이 중 경험적, 실증적 연구와 관련하여 발달하여 온 사회심리적 관점(Seeman, 1959)에서의 소외는 단일한 현상보다는 다차원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Dean(1961)은 Seeman(1959)의 소외유형론을 수정보완하여 측정가능한 하위 개념으로 조작적 정

의를 내리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척도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감 척도(DAS: Dean's Alienation Scale)의 하위 개념은 개인적, 사회적 통제나 조절은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하는 무력감,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규범상실감, 사회가 자신을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고립감이다. Dean(1961)의 소외감 척도는 소수 이민자의 소외감이나 이상심리와 소외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Calabrese & Adams, 1990; Calabrese & Raymond, 1988; Moon, 1988; Young, 1989)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규명하기 위하여 Dean(1961)의 소외감 개념을 채택하였다.

## 2. 관련변수고찰

관련변수의 선정은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 특성 변수, 가족 특성 변수, 사회적 지원 변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런데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저소득층 여성 또는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변수를 고찰하였다.

### 1) 개인 특성 변수

개인 특성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소득, 건강상태, 결혼지위, 종교활동 참여도, 직업역할 보상/비용을 고찰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오직 경제적 이유에서 시한부로 취업한 고연령층과, 일 자체에도 의미를 두는 동시에 돈벌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저연령층으로 대별되는 등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현정혜·박혜인, 1992).

또한 편모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건강, 이웃관계 등이 모두 좋아지며(Amato & Patridge, 1987),

1) 소득이 낮은 계층이란 소득이 보건복지부의 모자복지가정 선정기준(81만 7천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74만원) 전후인 사람들로써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및 공공근로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설모자가정의 편모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였다(박영란, 1999). 또한 편모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하였다(정현숙·서동인, 1996).

편모의 우울감은 경제적으로 궁핍할수록 높아졌는데(Gongla & Thom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 이러한 경제력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있어서 본인의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가정생활 만족도의 차이로 연결되었다(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건강의 경우, 시설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은 대부분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과로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하였다(박영란, 1999). 특히 모자세대는 여성이 세대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건강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재일·이정은·이애재, 1997).

결혼 지위에 있어서 모자가족의 적응문제는 여성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담과중에서는 동일하나 발생요인이 사별인가, 이혼인가에 따라 그 적응과정과 과제가 달라졌다(조성혜, 1997).

편모는 편모가족이 되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종교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자, 1985). 또한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어느 곳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가장 활발히 벌이는 단체이므로 종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종교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원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역할 보상/비용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이기 때문에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은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김태홍, 1993; 정문자·이미리·여주경, 1998; 정문자·이미리, 1998; 통계청, 1997).

## 2) 가족 특성 변수

가족 특성 변수로는 가족의 적응성, 보상적/비용적 자녀관, 자녀의 지원, 경제적 긴장사건을 고찰하였다.

가족의 적응성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뿐 아니라 저

소득층이나 빈곤층, 혹은 편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으나 특히 문제가족에게 잘 적용되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적응성은 다양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가족의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자신의 희망으로 생각하는 애증관계를 보이고 있었다(박영란, 1998).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관을 보상과 비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모에게 자녀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김인숙, 1994; 김정자, 1985; 박영란, 1999; 신화용·조병은, 1996; 유안진·김연진, 1993; 정현희·최경순, 1996; 조희금, 1993; Amato & Patridge, 1987), 편모의 가족 내 자원인 자녀는 편모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신화용·조병은, 1996).

경제적 긴장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 편모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편모의 적응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김태현·조희선, 1991). 또한 저소득층 편모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할수록 우울감이 높았다(Gongla & Thomson, 1987;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

## 3) 사회적 지원 변수

사회적 지원이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Gladow & Ray, 1986; McLanahan, Wedemeyer, & Adelberg, 1981),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정자, 1994; 김정자·변화순·윤영숙·강선혜·제갈정, 1990; 최해경, 1997).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

### Ⅲ.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 1) 소외감 척도

소외감 척도는 Dean(1961)의 소외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16문항으로 무력감 6문항, 규범상실감 5문항, 사회적 고립감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16점부터 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2) 직업역할 보상/비용 척도

직업역할 보상/비용 척도는 신기영(1999)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직업역할 보상 척도는 5문항으로 점수범위는 5점부터 25점까지이며, 직업역할 비용 척도는 7문항으로 7점부터 35점까지이다.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역할을 보상 또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59와 .7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3) 가족의 적응성 척도

가족의 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Olson, Bell과 Portner(1982)가 개발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평가 척도(FACES: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중 적응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범위는 8점부터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4) 보상적/비용적 자녀관 척도

자녀관 척도는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와 고선주(1998)의 척도와 Fawcett, Alore와 Arnold(1972)의 척도에서 자녀로부터 얻는 보상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보상적 자녀관 척도는 6문항으

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비용적 자녀관 척도는 6문항으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보상적 혹은 비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2, .55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5) 자녀의 지원 척도

자녀의 지원 척도는 관련연구(신기영, 1999; 진미정, 1994; 현은강·조복희, 1994; Baruch & Barnett, 1986) 척도에서 자녀의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5점부터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지원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6) 경제적 긴장사건 척도

경제적 긴장사건 척도는 Simons, Beaman, Conger와 Chao(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해당 경제적 긴장사건이 발생하였으면 1점, 발생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경제적 긴장사건이 많았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7) 사회적 지원 척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기영(1991), 원효종(1997)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친척, 친구, 이웃의 3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점수범위는 각 범주별로 14점에서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범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친척의 지원이 .96, 친구의 지원이 .95, 이웃의 지원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사

별,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무직상태로 인하여 가정의 주된 생계부양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첫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으로,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및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후 3개월 이내인 여성가장이다.

조사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는 탐색조사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3단계 본조사는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하는 여성의 집>교육생,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입주자, 종합병원, 노동자회관, 사회복지기관 등<sup>2)</sup>에서 소개한 자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유의추출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35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와 30대가 각각 55.6%, 41.5%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7.3%였고, 중졸이 23.8%, 고졸이 58.9%, 전문대졸 이상은 9.9%였다. 본인의 소득은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43.6%였으며, 51만원-75만원이 30.1%, 76-100만원이 21.2%, 101만원 이상이 5.2%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4.8%를 차지하였고, 평균소득은 62만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7.0%, 건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6.6%를 차지하였다. 결혼 지위에 있어서는 이혼한 경우가 28.1%, 사별한 경우가 21.6%,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13.8%였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부인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36.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2.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예식에 꼭 참여하는 비율과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각각 25.8%와 22.8%로 가장 많았고, 예식 뿐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14.9%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역할 보상(최도의 범위: 5-25점/ 평균값: 17점)과 비용(최도의 범위: 7-35점/ 평균값: 23점)은 보통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적응성(최도의 범위: 8-40점/ 평균값: 28점)과 자녀의 지원 정도(최도의 범위: 5-60점/ 평균값: 43점)는 높은 수준이었고, 경제적 긴장사건 또한 비교적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를 보상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최도의 범위: 6-30점/ 평균값: 23점),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다(최도의 범위: 6-30점/ 평균값: 20점).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원 정도를 보면 친척의 지원의 경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최도의 범위: 14-70점/ 평균값: 48점), 친구의 지원의 경우는 보통 수준(최도의 범위: 14-70점/ 평균값: 44점), 그리고 이웃의 지원의 경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최도의 범위: 14-70점/ 평균값: 38점).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판매·영업·서비스직과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이 각각 22.9%와 2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 단순기능직, 공공근로에 종사하거나 구직 중인 경우, 자영업 순이었다. 자녀의 수는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8.5%, 2명인 경우가 53.7%, 3명인 경우가 7.8%이었다. 또한 자녀는 초등학교생이 40.5%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생이 29.1%, 중학생이 23.3%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scheffé 검증,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직업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므로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복지 지원기관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른 소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 수준은 보통 수준이

나(척도의 범위: 16-80점/ 평균값: 44.00점, 표준편차: 8.09),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듯 하위범주 중 무력감은 높은 수준이었다(척도의 범위: 6-30 점/ 평균값: 18.20점, 표준편차: 4.42).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력감 수준이 높았는데, '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걱정된다'

〈표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른 소외감<sup>3)</sup> (N=356)

변수	집단(빈도)	소외감		
		평균	F	scheffé
연령	31-35세( 56)	42.63	.63	
	36-40세(115)	44.19		
	41-45세(131)	44.33		
	46-55세( 47)	44.02		
교육수준	중졸 이하(106)	45.37	5.45**	a
	고졸(201)	44.11		a
	전문대졸 이상(34)	40.18		b
본인의 소득	0-50만원(142)	44.34	2.95**	a
	51-75만원(98)	44.40		a
	76-100만원(69)	43.87		a
	101-200만원(17)	38.35		b
건강상태	병이 잦다(30)	47.30	5.68***	a
	건강하지 않다(96)	44.81		a
	보통이다(163)	44.44		a
	건강하다(59)	40.64		ab
	매우 건강하다(7)	37.14		b
결혼지위	사별( 77)	43.87	1.89	
	이혼(100)	42.87		
	별거( 49)	46.20		
	남편과 동거(130)	44.12		
종교활동 참여도	참여하지 않는다(100)	44.72	7.86**	a
	이름만 걸어놓았다(111)	45.88		a
	열심히 참여한다(145)	42.06		b
직업역할보상	낮은집단(110)	46.05	8.81***	a
	중간집단(155)	44.10		a
	높은집단( 91)	41.35		b
직업역할비용	낮은집단(116)	40.66	25.69***	a
	중간집단(153)	44.05		b
	높은집단( 87)	48.37		c

\* p < .05, \*\* p < .01, \*\*\* p < .001

(평균값: 3.76점, 표준편차: 1.07)는 문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외감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높은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양육과 동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이므로 비용과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에게 만족할만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표 1>에서 제시된 결과처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교육수준, 본인의 소득, 건강상태, 종교활동 참여도, 직업역할 보상/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추후검증 결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 본인의 소득이 101만원 이상인 집단, 건강한 집단,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소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직업역할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며 비용을 적게 느끼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소외감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연령과 결혼지위에 따라서 이들의 소외감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 특성 변수에 따른 소외감

다음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의 적응성, 비용적 자녀관, 자녀의 지원, 경제적 긴장사건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적응성이 높고 자녀의 지원이 많으며 경제적 긴장사건을 적게 경험한 집단일수록 소외감 수준이 낮았다. 또한 자녀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소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 특성 변수에 따른 소외감 (N=356)

변수	집단(빈도)	소외감		
		평균	F	scheffé
가족의 적응성	낮은집단(105)	46.72	12.23***	a
	중간집단(146)	43.93		b
	높은집단(105)	41.37		c
보상적 자녀관	낮은집단( 83)	44.69	.80	
	중간집단(160)	44.16		
	높은집단(113)	43.27		
비용적 자녀관	낮은집단(105)	39.25	36.49***	a
	중간집단(176)	44.97		b
	높은집단( 75)	48.39		c
자녀의 지원	적은집단(129)	47.25	34.95***	a
	중간집단(129)	44.54		b
	많은집단( 98)	39.01		c
경제적 긴장사건	적은집단(121)	40.79	19.09***	a
	중간집단(114)	44.36		b
	많은집단(121)	46.88		c

\*\*\*  $p < .001$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직업역할 보상/비용은 평균과 표준편차( $M \pm \frac{1}{2}SD$ )를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원 변수에 따른 소외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변수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친척, 친구, 이웃의 사회적 지원에 따라 소외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친척, 친구, 이웃의 사회적 지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외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설명하여 주는 변수를 크게 자녀, 직업·경제문제, 교육수준의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가장 큰 자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자녀의 지원이 이들의 소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녀라는 존재가 가족관계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편모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신화용·조병

<표 3>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원 변수에 따른 소외감 (N=356)

변수	집단(빈도)	소외감		
		평균	F	scheffé
친척의 지원	적은집단( 88)	44.94	3.20*	a
	중간집단(149)	44.65		a
	많은집단(119)	42.49		b
친구의 지원	적은집단( 84)	46.10	9.90***	a
	중간집단(164)	44.70		a
	많은집단(108)	41.31		b
이웃의 지원	적은집단(107)	45.61	3.76*	a
	중간집단(118)	43.50		ab
	많은집단(131)	42.83		b

\* p < .05. \*\*\* p < .001

4.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자녀의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역할 비용, 비용적 자녀관, 경제적 긴장사건, 교육수준, 직업역할 보상 순이었다. 즉, 자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직업역할을 덜 비용적으로 인식할수록, 자녀를 덜 비용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적 긴장사건을 덜 경험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역할을 보상으로 인식할수록 소외감 수준이 높았다. 이들 변수들은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38%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

<표 4>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대한 중회귀분석 (N=326)

관련변수	소외감	
	b	β
1. 자녀의 지원	-.31	-.25***
2. 직업역할 비용	.39	.22***
3. 비용적 자녀관	.42	.19***
4. 경제적 긴장사건	.58	.16**
5. 교육수준	-.43	-.13**
6. 직업역할 보상	-.28	-.10*
상수	46.33	
F	31.53***	
R <sup>2</sup>	.38	

\* p < .05. \*\*p < .01. \*\*\* p < .001

은, 1996)와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들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건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건 소외감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 중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경제적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가족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산이나 수입을 필수로 하므로, 이러한 생산이나 수입을 가져오는 직업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일선에 있는 여성가장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활 속에서 경험하였던 경제적 사건이나 직업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이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수준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가 편모가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사회가 편모가족에 대해 호의적일수록 편모가족을 위한 중요한 지원체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신화용·조병은, 1996)와도 관련이 깊다. 즉, 교육수준은 이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사회가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라는 것은 보다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므로 직업이라는 매개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은 점차 핵가족화되어 그 기능이 축소되고 약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그 기능이 보다 약화되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오히려 일반가족보다 낮은(정현숙·서동인, 1996) 실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원 변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사회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보통정도의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외감의 하위범주 중 무력감은 높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시간·비용 등의 자원의 부족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교육수준, 본인의 소득, 건강상태, 종교활동 참여도, 직업역할 보상/비용 등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라서 다르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본인의 소득이 많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종교활동이 활발하며, 직업역할에서 보상을 많이 느끼고 비용을 적게 느끼는 경우 소외감 수준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은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하는 요소이므로 소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강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가 부각되는 이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자원으로 작용하며, 종교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모두 의지의 대상이 되어 소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직업을 보면, 직업은 주된 생계수단이 되며 또한 이들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두기 때문에(현정혜·박혜인, 1991), 직업역할에서 갖는 보상/비용도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비용적 자녀관, 자녀의 지원, 가족의 적응성, 경제적 긴장사건 등의 가족 특성 변수에 따라서 다르다. 즉 자녀를 덜 비용적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지원이 많으며 적응성이 높고 경제적 긴장사건을 덜 경험할수록 소외감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편모의 적응에 자녀가 중요한 자원이 되며, 자녀라는 존재가 부담이 되지만 동시에 희망이 되는 애증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정자, 1985; 박영란, 1998; 신화용·조병은, 1996; Amato & Patridge, 1987)를 지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IMF 금융관리체제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위기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사회적 지원 특성 변수에 따라서 소외감 수준이 다르다. 즉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 소외감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현숙·서동인, 1996; 최해경, 1997; Gradow & Ray, 1986)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이 이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는 자녀의 지원, 직업역할 비용, 비용적 자녀관, 경제적 긴장사건, 교육수준, 직업역할 보상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38% 설명해 주므로, 여성가장의 소외감은 자녀, 직업·경제 문제, 교육수준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

결론을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자녀는 생존의 의미를 제공하며, 소외감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가장에게는 자녀에게 느끼는 부담감을 낮출 수 있게 하며, 자녀에게는 자신의 지원이 어머니의 소외감을 낮추는 중요한 자원이 됨을 이해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직업 문제가 이들 여성가장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취업이란 경제력과 직접 연결이 되며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들 가족의 생존 현실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경험하는 소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낮추는 자원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여성가장에게 정규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이 세대간에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즉, 현재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의, 그리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에서의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추후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지원,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김인숙(1994).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9, 5-18.
- 김정자(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3(1), 30-78.
-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3), 5-43.
- 김정자·변화순·윤영숙·강선희·제갈정(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현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 간의 가족 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11(4), 5-38.
-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분석; 자보호시설 입소가정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6(2), 149-177.
- 박혜인(1992). 한국사회의 도시빈곤가족. *가족학논집* 4, 157-173.
- 변화순 · 원영애 · 김성경 · 김영란 · 김민정(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 · 옥선화(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1-128.
- 신화용 ·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6.
-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1998). 가족/친족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유안진 · 김연진(1993).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전재일 · 이경은 · 이애재(1997).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대구: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정문자 · 이미리(1998). 도시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척도 개발과 대처행동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29-143.
- 정문자 · 이미리 · 어주경(1998).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 정현숙 · 서동인(1996). 편부모가족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 및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서울특별시 96 가정복지 세미나.
- 정현희 ·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 후 생활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조성혜(1997).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가족의 자조집단 형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5), 289-315.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진미정 ·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4.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7.
- 통계청(1997).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현온강 ·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현정혜 · 박혜인(1992).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과출부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183-202.
- Amato, P. R. & Patridge, S.(1987). Widows and divorces with dependent children: Marital, personal, family and soci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36, 316-320.
- Baruch, G. K. & Barnett, R. C.(1986). Role quality, mu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Calabrese, R. L. & Adams, J.(1990). Alienation: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 435-440.
- Calabrese, R. L. & Raymond, E. J.(1988). Alienation: It's impact on adolescents from stable environm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3, 397-404.

- Dean(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 Fawcett, J., Alores, S. & Arnold, F.(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s. In Fawcett(eds).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Gladow, N. W. & Ray, M. P.(1986). The impact of informal supportsystems on the well-being of low income single parents. *Family Relations* 35, 113-123.
- Gongla, P. & Thomson, E. J.(1987). Single parents families. In Sussman, M. & Steinmetz, 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N.Y. : Plenum.
- Jeong-Hwa Moon(1988). *Alienation of elderly Korean American immigrants as related to place of residence, gender, age, years of education, time in the U. S., and living arrangement*. Oklahoma: Oklahoma State University.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McLanahan, S., Wedemeyer, N. & Adelberg, T. (1981). Network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single parent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01-612.
- Olson, D. H., Bell. R. & Portner. J.(1982). *Family adapti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 St. Paul : Minnesota University.
- Richards, L. & Schmiede, C. (1993).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eeman(1959). On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Seeman, M.(1975). Alienation studies. In Inkeles, A., Coleman, J., & Smelser, N.(eds.) *Annual review of sociological*.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0). Stress,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598.
- Young, T. J.(1989). Alienation and self-reported deviance. *Psychological Reports* 65, 727-730.